



시민 518명 소리모아 '부활' 독재와 폭력에 항거했던 오월 정신이 음악으로 부활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시민합창단 518명이 참여한 5·18 30주년 기념 말러 교향곡 제 2번 '부활' 공연이 1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 5·18묘지 빛속 추모객 3만여명 주먹밥 체험·거리 공연 등 다채

### ■ 5·18 추모제·전야제 이모저모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은 정치인·대학생·시민·외국인 등 추모객 수는 3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000명에 비해 11.1%(3000명) 증가했다.

추모객 이근선(34·남구 진월동)씨는 "해마다 추모제 행사에 참석했다"며 "추모객들이 송고한 5월 정신의 의미를 잘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소속 학생 100명은 이날 전야제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 시민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5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참가한 이들은 도복을 입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본 동작·품세·발차기·격파 등의 순서로 시범을 보였다. 조선대 태권도학과 2년 김건태(23)씨는 "전야제 행사에 직접 참석해 보니, 5·18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송고한 5월 정신이 영원토록 시민들에게 계승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전야제가 열린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찾아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겼다.

전야제 식전행사에서는 '주먹밥 만들기 체험'을 비롯한 전국민족극 한마당의 '마당극의 기록, 연출의 기억'이라는 길거리 공연, 관소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였다. 시민 최한규(32·남구 봉선동)씨는 "비가 오는

데도 몸을 사리지 않고 공연하는 출연진들을 보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찬사를 보냈다.

○추모제가 열린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은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일부 행사가 중단되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내·외빈들의 소개가 계속되면서 행사 시간이 15분간 지연되자 마지막 행사인 추모 관소리를 도중에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날 기호·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추모제에 참석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해 추모객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눈에 잘 띄는 원색계열의 상의를 입은 후보자들은 추모보다는 득표활동에 열중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공연 5월 영령 또다른 탄생 축복

오 그대 내 사랑 그대/너 슬퍼하지 말라/네 꿈, 오네 꿈/네가 꿈꾼 세상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리/종락/일어나! 자 일어나!/내 사랑아, 너 일어나!/어둠을 뚫고/한 빛 되어 살아나라!/-

광주시향 구자범 상임지휘자가 지난해 취임하면서부터 계획했던 이번 무대는 특히 518명에 달하는 시민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합창단에는 광주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광주는행합창단, 호남신학대학합창단, 조선대음악교육학과 합창단 등 지역 합창단 뿐 아니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일반 시민들, 그리고 부산한울림합창단, 전교조 서울지부 합창단, 서울 유로기아남성합창단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연주자들이 참여, '5월 광주'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시민합창단이 부른 5악장의 가사는 구자범과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함께 썼다. 아쉽게도 18일 옛 전남도청 앞 특별무대에서 열린 예정이던 공연은 우천 관계로 취소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7분 해질 19시 31분 달돋이 09시 02분 달질 23시 37분

**흐리고 비**  
하루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다. 해안지방에는 돌풍이 예상된다.

|     |      |        |
|-----|------|--------|
| 광주  | 흐리고비 | 18/22℃ |
| 목포  | 흐리고비 | 18/21℃ |
| 여수  | 흐리고비 | 16/19℃ |
| 완도  | 흐리고비 | 17/22℃ |
| 구례  | 흐리고비 | 17/21℃ |
| 에남  | 흐리고비 | 17/22℃ |
| 장흥  | 흐리고비 | 17/21℃ |
| 고흥  | 흐리고비 | 16/20℃ |
| 순천  | 흐리고비 | 16/20℃ |
| 영광  | 흐리고비 | 18/22℃ |
| 진도  | 흐리고비 | 17/21℃ |
| 전주  | 흐리고비 | 18/22℃ |
| 남원  | 흐리고비 | 16/20℃ |
| 옥산도 | 흐리고비 | 15/19℃ |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제주

| 종향        | 파고   | 지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황사지수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동~남 | 1.5~2.5m | 보통    | 경고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동~남 | 2.0~3.0m | 보통    | 낮음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1.5~2.5m | 목포    | 05:10 10:21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2.0~3.0m | 여수    | 11:43 05:48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2.0~4.0m |       | 17:10 22:21 |
|           |      |          |       | 17:52       |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19(수) | 20(목) | 21(금) | 22(토) | 23(일) | 24(월)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17/25 | 17/28 | 17/28 | 17/25 | 18/24 | 16/26 |

## 하늘도 '눈물'

5·18 30주년 광주·전남 20~80mm 비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일인 18일 광주·전남은 하루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80mm.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중국 남부지방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온 후 19일 오전에 그쳐겠다"고 17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8도, 낮 최고기온은 19~22도로 17일 보다 낮겠다.

해안지방에는 강한 돌풍이 불고, 남해상에는 돌풍·강풍에비특보가 발효돼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4.0m로 높게 일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신앙파크호텔** **확 바꿨습니다.**

상당 및 문의: 062-228-9000, 221-4101-3

**대출받을 때! 받은 후에도!**

1566-1010

www.kosmoeng.com

**2010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50%**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10년 6월)

신기프로

할 사용량이 100%이상 주택에 전기요금 면제 한 103,600원/월 면제 후 19,870원/월 평균 80% 이상 전기요금을 절감!

**COSMOENG [주]코스모엔지니어링** T. 080-7272-7000